

역사적 사건으로서의 여순 10·19와 문학적 형상화*

최현주**

목 차

1. 역사의 평행이론: 광주 5·18과 여수·순천 10·19
2. 하위주체, 말하지 못한 자들의 귀환
3.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사건에서 마주한 진리
4. 애도와 용서의 문학적 형상화
5. 여순 10·19의 문학적 형상화와 그 전망
6. 맺음말

〈국문초록〉

이 논문은 해방 이후 한국 현대사의 전개 과정에서 대표적인 국가 폭력 사건 중의 하나인 여순 10·19사건을 소재로 한 문학작품을 텍스트로 하여 사건이 가진 역사적 의의와 문학적 형상화 과정을 고찰하였다. 제주 4·3항쟁으로 인해 촉발된 여순 10·19는 국가 권력에 의한 민간인 학살에 있어서 제주의 피해와 유사하고 광주 5·18과도 역사적 사건의 진행 과정에서 동일한 사회·역사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건이지만 여전히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과 희생자의 명예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처럼 열악한 상황의 근원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역사적 사건의 진실과 의의에 대한 대중적 공감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주요한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여순사건을 다룬 문학·예술 작품들은 제주 4·3이나 광주 5·18에 비해 작품의 양도 부족하고 특히 대중들에게 많이 알려지지 못하고 있다. 이에 이 논문은 여순 10·19 사건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한 작품들을 일별해가면서 작품에 제시된 역사적 의의를 추론해 보았다.

* 이 논문은 2016년 순천대학교 학술연구비 공모과제로 연구되었음.

** 순천대학교 교수

김진수의 시 「애기섬 수장터」를 중심으로 자신들의 상처와 고통을 말하지 못하고 침묵하는 하위주체들의 모습을 살펴보고, 전병순의 장편소설 『절망 뒤에 오는 것』을 통하여 진압군의 총부리 앞에서 죽음을 마주한 존재들의 절망과 가치 상실의 양상을 고찰하였다. 또한 이태의 『여순병란』을 통하여 권력자들의 장치의 산물인 냉전이데올로기의 폐해를 극복하고 감성에 바탕한 애도와 용서의 문학적 형상화 가능성을 모색하였고, 양영제의 장편소설 『여수역』을 중심으로 사건의 진상 규명과 역사적 해결을 위해서는 여순사건이 지나간 과거가 아니라 여전히 우리 모두가 해결해야 할 현재형의 사건임을 고찰해보았다. 그리고 여순 10·19 사건을 소재로 한 보다 많은 문학적 형상화 작업이 필요하고, 그러한 과제가 충족되었을 때 여순 10·19 문학이 한국문학사에 새롭게 자리매김 될 것이라 기대해보았다.

주제어: 여순10·19사건, 광주 5·18, 사건, 하위주체, 애도와 용서, 문학적 형상화

1. 역사의 평행이론 : 광주 5·18과 여수·순천 10·19

역사는 유사한 방식으로 반복된다. 사회구성체의 구조적 모순이 완벽하게 해소되지 않는 한 그 모순은 스스로 매개가 되어 동일한 사건을 반복적으로 발생시킨다. 적어도 한반도의 근현대사의 전개 과정에서 이러한 역사의 평행이론은 매번 발생하는 사건들에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된다. 동학혁명으로부터 1차 의병, 2차 의병, 소작쟁의 투쟁, 광주 학생의거, 여순사건, 그리고 5·18광주민주화운동에 이르기까지 호남을 역사적 공간으로 삼은 사건들은 동일한 양상으로 계속되어 왔다. 이러한 사건들이 모두 한국 사회구성체의 가장 근본적인 모순들을 매개로 하여 발생했기 때문일 것이다.

한국 사회구성체의 기본모순은 이미 1894년 갑오년 고부에서부터 시작된 동학혁명에서 의제화되었다. 척양척왜(斥洋斥倭)·제폭구민(除暴求民)이 바로 그러한 의제를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당시 전봉준을 비롯한 동학군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민중들은 조선후기 사회의 근본적 모순을 외세의 침탈

과 봉건적인 지배계급의 억압과 수탈로 보았다. 당대 깨우친 민중들이 목숨을 바쳐 부르짖은 의제가 바로 지금도 강조되어야 할 반제·반봉건이었다. 그리고 그러한 반제 반봉건의 의제는 의병투쟁, 광주학생의거를 거쳐 1948년의 여순사건, 1980년의 광주 5·18로 반복되었다.

여순사건을 일으킨 주체들의 구호가 다름 아닌 ‘동족상잔 결사반대·미군즉시 철퇴’였다는 점에서 무섭도록 놀라운 한국 근현대사의 평행이론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여순사건이 단지 몇몇 선동적인 군인들의 즉흥적인 봉기가 아니었음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하다. 14연대 군인들의 봉기는 반제·반봉건을 원하는 각성된 민중들의 염원이 도화선으로 작동한 것이었다. 당시의 민중들이 원하는 것은 분단 없는 민족국가 건설이었다. 그럼에도 국토는 남북으로 분단되었고 남한의 정권은 미국의 제국주의적인 세계 체제 전략의 침병 역할에 한정되었다. 미군정은 일제의 식민잔재를 청산하기는커녕 일제의 하수인들을 다시 공무원과 경찰·군인으로 우대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승만 정권은 친일파 지주들의 이익을 보장하는 방향의 토지개혁을 실시함으로써 해방된 조국의 국민이라는 민중들의 자부심과 요구를 철저히 짓밟고 말았던 것이다. 여순사건의 발생이 바로 제국주의와 봉건주의에 대한 민중의 저항, 즉 반제·반봉건으로부터 구조적으로 기원하였음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도 마찬가지였다. 1980년 왜 광주에서 그러한 항쟁이 발생하였는가를 되짚어보면 바로 친미를 기반으로 정권을 운영한 박정희 체제가 자행한 반민족적이고 반민중적 통치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러한 박정희 정권의 모순이 가장 극명하게 투영된 곳이 1980년 광주였던 것이다. 박정희의 지역차별적인 산업화정책 때문에 호남지역의 삶은 그 이전 세대에 비해 더욱 힘들어지게 되었는데 이를 반증하는 것이 호남 인구의 감소이다. 해방 전후 전남의 인구는 경남이나 경북의 인구와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1980년에 이르면 엄청나게 감소하게 된다. 농업중심에서 공업중심으로 산업체계가 변화하면서 호남은 생존이 힘든 공간이 되었다. 그래서 1980년 광주가 그러한 구조적 모순에 대한 민중들의 저항의 거점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런

데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광주 민중들의 평화적인 저항을 폭력적으로 진압하려는 전두환 체제에 대해 미국이 동의를 해주었다는 데 있다. 미국은 백악관에서 ‘고위백악관정책검토위원회’를 열고 즉각적인 광주 문제 해결을 결정하였는데, 이는 군사력의 개입을 통한 빠른 진압을 의미하는 것이었다.¹⁾ 그래서 1980년 광주 이후로 반미 운동이 시작되었던 것이다. 이처럼 광주항쟁 또한 민중들의 열악해진 생활고의 문제와 더불어 외세의 개입 등의 구조적 모순이 작동했던 사건으로, 동학혁명의 의제였던 ‘척양척왜 · 제폭구민’, ‘반제 · 반봉건’을 반복적으로 환기시켜 주고 있다.

이처럼 여순사건과 광주 5·18항쟁은 발생의 구조적 원인과 민중들의 의제가 닮아 있다. 뿐만 아니라 사건의 진행과정도 유사하다. 광주 5·18은 1980년 5월 18일부터 5월 27일까지 진행되었고, 여순사건은 적어도 여수 순천지역으로만 한정하면 1948년 10월 19일부터 10월 27일까지라고 할 수 있다. 사건이 발생한 후 10여일 만에 군대의 진압과 점령이 이루어졌다는 공통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진압이 시작되었을 때 전남도청을 지키는 것은 민중들로 구성된 시민군이었고, 여수를 마지막까지 지켜낸 이들은 여수의 민중들이었다. 10월 24일부터 27일까지 여수지역의 진압과정에서 14연대 주력병력은 이미 구례, 광양을 거쳐 지리산으로 향하고 있었고, 진압군에 마지막 항쟁을 벌인 이들은 여수의 학생과 청년들이 중심이 된 여수의 시민군들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군대의 진압과 점령과정 중에 엄청난 국가폭력이 자행되었고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도 공통점이 있다. 또한 국민에

1) 미국 정부는 신군부가 초기에 강경하게 시위를 진압하는데 동의하였다. 그렇지만, 시위는 수그러들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어 갔다. 외국의 언론들은 광주에서 벌어진 비참한 상황을 전세계에 타전하기 시작하였다. 백악관 정책검토위원회는 대규모의 인명이 살상되는 최악의 상황을 검토한 뒤, 광주를 완전히 제압할 것을 결정하였다. 그리고 5월 26일 광주에 거주하고 있던 미국인을 비롯한 외국인도 소거되고, 미 항공모함이 한반도 해역에 배치되었다.(박만규, 「신군부의 광주항쟁 진압과 미국문제」, 『민주주의와 인권』 3권 1호, 2003, 239면.)

게 엄청난 폭력을 자행함으로써 정통성을 상실한 권력집단은 이러한 사건들을 계기로 하여 새로운 권력 체계와 지배 체제를 형성해 나갔다. 여순사건 이후 이승만은 국가보안법과 계엄법 등 지금까지도 우리 사회가 열린사회로 나아가는 데 제약으로 작동하는 법과 사회체제, 이데올로기를 형성하여 장기집권과 영구적인 민족분단의 토대를 마련하였다.²⁾ 5·18 이후 전두환은 모순에 가득 찬 박정희 정권의 체계와 이념을 그대로 계승한 채 대통령이 되어 지금까지도 우리 사회구성체의 모순을 증폭시키는 국가 사회체제를 만들어내었다.

하지만 광주 5·18과 여순 10·19는 현재 평행을 달리고 있지는 않다. 정통성을 상실한 국가 권력에 의해 자행된 국가폭력의 희생자들에 대해 국가는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광주 5·18과 비교하여 여순사건은 아직도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가 나서서 공식적인 사과조차도 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모순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것이 단지 당시의 희생자들이나 유족의 문제인가, 아니면 여수 순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인가? 이는 한국 사회 민주화의 정도의 문제이자 국가 권력의 민족사적 정통성의 문제이기도 하다. 그리고 전지구적 세계 자본주의 체제 가운데 한반도의 미래와 연관된 문제이기도 하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여순 10·19를 소재로 한 문학작품들을 텍스트로 하

2) 대한민국 정부 수립 2개월만에 발발한 여순사건은 이승만 정권에게 위기이며 기회였다. 이승만 정부는 여순사건을 계기로 대한민국(이승만 정권)은 맹목적 반공주의를 유지·발전시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면서 체제 안정을 꾀하였다. 첫째가 법적 제도적 장치를 정비하거나 마련하는 것이었다. 국가 기구를 통한 물리적 법제의 억압과 감시라는 배제 방식이 상층부로부터의 '반공주의' 체제 구축이었다면, 아래로부터 반공주의를 확대 재생산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했다. 그 결과로 이승만 정권은 국가보안법(1948년 12월 1일, 법률 제10호), 계엄법(1949년 11월 24일, 법률 제69호), '비상사태하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1950년 6월 25일 대통령 긴급 명령 제1호로 공포), '선전대책중앙위원회'(1948년 11월 30일, 대통령령 제35호) 등의 법률과 규정 등을 제정·공포하였고 학도호국단 결성, 국민개병제 등을 시행하였다.(주철희, 『한국전쟁 전후 반공문화의 형성과 그 의미』, 『한국민족문화』 59,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원, 2016, 5면)

여 여순 10·19 사건의 역사적 의의를 추론해보고, 한편으로는 여순 10·19 사건의 문학적 형상화 과정에서의 문제점과 지향해야 할 가치 등의 과제들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2. 하위주체, 말하지 못한 자들의 귀환

지금부터 70년 전 여수와 순천의 민중들은 자신의 안위와 편안함보다는 사회의 구조적 부조리로 인해 억압당하고 수탈당하는 존재들, 생존의 절대적 위협을 받는 이들을 위해 몸을 던졌다. 그로 인해 많은 이들이 희생되었고, 그들은 좌익으로, 빨갱이로, 건강한 사회를 해치는 절대악으로 규정되어 이 땅에서의 존재의의를 부정당했고, 지금까지도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라는 물리적 권력집단은 누구도 그들을 기억하거나 말할 수 없도록 주홍글씨라는 낙인을 박아놓았다.

그들은 우리 시대의 호모 사케르(Homo Sacer)³⁾이다. 『호모 사케르』란 책을 쓴 조르조 아감벤은 호모 사케르의 유래로 고대 로마사회에서 육체적으로 살아있지만 법적으로 존재를 인정받지 못한 자들을 예시로 끌어온다. 그들은 시민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받지 못하였으며, 극단적인 경우 누군가가 그들을 살해할 지라도 그 살인자는 처벌받지 않았다고 한다. 이러한 존재들을 우리는 호모 사케르, 희생양이라고 부른다. 이러한 희생양들을 분리하고 구별 짓는 것과 동시에 그들에 대한 희생을 요구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통해 권력집단은 자신들의 권력을 지며내고 재생산해왔던 것이다.

3) 호모 사케르란 사람들이 범죄자로 판정된 자를 말한다. 그를 희생물로 바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그를 죽이더라도 살인죄로 처벌받지 않는다. 사실 최초의 호민관법은 “만약 누군가 평민 의결을 통해 신성한 자로 공표된 사람을 죽여도 이는 살인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기하고 있다. 이로부터 나쁘거나 불량한 자를 신성한 자(호모 사케르)라 부르는 풍습이 유래한다.(조르조 아감벤, 『호모 사케르-주권 권력과 벌거벗은 생명』, 새물결, 2008, 156면.)

실제로 여순사건 이후 이승만 권력은 국가보안법과 계엄법을 제정하여 자신의 정치적 반대파들을 좌익, 공산주의자로 몰아 억압하거나 처단하였다. 뿐만 아니라 좌익의 경향이 있는 이들을 전향시킨다는 이유로 보도연맹을 조직하여 6·25전쟁 직후 엄청난 학살을 자행하였다. 해방직후부터 6·25 전쟁기간동안 국가폭력에 의한 남한 지역의 민간인 희생자는 몇몇 연구자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50만에서 114만 명에 이른다⁴⁾고 한다. 이처럼 여순사건과 6·25전쟁을 전후해서 많은 희생자들을 정치적으로 악용한 이승만과 이후의 보수 권력집단은 이러한 장치들을 통하여 사회를 통제하고 자신의 정치적 반대파들을 희생양으로 삼아 왔던 것이다.

이처럼 여순사건의 희생자들은 호모 사케르이자 말할 수 없는 자들인 하위주체들이었다. 하위주체들에 의해 발화된 것은 결코 기득권 사회에 수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광기나 이단으로 폄하되었다. 권력자들의 발화가 아닌 것들은 진리치에서 떨어져 있는 것이거나 시끄러운 소음이거나 말도 안 되는 헛소리로 치부되어 왔던 것이다. 그래서 자신들의 삶을 자신들의 언어로 말할 수 없는 하위주체들은 망각되었거나 망각을 강요당한 존재들이다.

여순사건의 하위주체들 또한 마찬가지이다. 그들의 아름다운 목소리는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다. 그들은 말하고 싶어도 말할 수 없었고, 오히려 침묵을 강요당했다.

양민들의 손발은 좌우도 없이
 철삿줄 동앗줄에 단단히 묶이고
 죄명도 알 수 없는 바윗돌까지 채워져
 한 가닥의 혼적조차도 남기지 말라는 듯
 뺏전을 뚫고 가는 총소리 한방 한방
 수많은 가슴에서 솟구치는 선혈을

4) 한성훈,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의 진상을 찾아서」, 『여성과 평화』 2, 한국여성평화연구원, 2002, 254면.

여기 깊은 바다 속에 빨갱이로 수장시켰다.
물길의 행로를 이미 잘 알고 기획한 자들의
무지막지한 흥계와 총칼 앞에서
힘없이 죽은 자는 죄인이 되고
죽인 자는 어처구니없는 정의가 되었다.

수천 수만 명의 손톱이 빠지고 발가락도 찢겨나갔다.
검푸른 파도가 아가리를 벌리고 오직 침묵만을 강요했다.

- 「애기섬 수장터」 일부⁵⁾

위의 시는 여수 앞바다 애기섬에서 발생한 민간인 학살을 형상화하고 있다. 죄없는 선량한 양민을 죄인으로 만들어 학살하고, 오히려 학살한 자는 정의가 되는 역설적 상황, 그런 불의한 상황에도 결국은 침묵을 강요당하고 침묵해야만 하는 하위주체들, 여순사건의 희생자들의 아픔을 노래한 시이다.

이처럼 정의롭지 못한 권력집단은 철저히 침묵을 강요하였고, 혹시라도 이러한 상황에 대한 진실의 말들을 광기어린 외침이나 시끄러운 잡담으로 치부하였다. 그로 인해 여순사건과 관련된 많은 이들은 침묵을 택하였다. 말할 수 없었고 말하지 않았다. 그런 이유로 말하지 못한 채 하위주체들은 잊혀 갔고,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져갔다.

하지만 그들의 귀환을 준비해야 한다. 그들의 침묵을 침묵으로 그치게 해서 안 된다. 그들의 침묵을 새롭게 해석하고 그들의 숨죽인 목소리를 커다란 울림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이러한 작업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위에 제시된 김진수의 시편들뿐만 아니라 나종영의 「여수동백」, 김해화의 「아버지의 꽃집」, 박두규의 「1948년 10월 여수」 등의 작품들이 창작 발표되었지만, 그럼에도 여순 10·19의 희생자들의 삶과 아픔에 대한 문학적 형상화 작업은 여전히 미진하기만 하다. 그들의 고통스러웠던 삶이, 그들의 숨죽인 생생한 목소리가 문학적으로 형상화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5) 김진수, 『좌광우도』, 실천문학사, 2018, 28~29면.

그들의 삶과 목소리의 문학적 형상화를 통해 한국 사회의 여러 가지 모순들이 제기되고 해결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되어야 하는 것이다.

3.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사건에서 마주한 진리

1948년 10월 19일 여수 앞바다에 첫 총소리가 울리면서 시작된 사건을 마주한 대부분의 이들은 공포에 휩싸였다. 살기 위해서, 죽음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총부리를 겨누고, 누군가의 총부리에 겨누어지면서 극단의 공포가 여수와 순천, 전남 동부를 휩쓸었다. 어쩌면 그것은 사건의 폭력성 혹은 혁명의 열기 때문이었을지도 모르고, 죽이고 죽는 광기의 상황 때문이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사건의 공포로 인해 누구도 말할 수 없었다.

이대로 죽는 거다. 별 수 없다. 찢쩍쩍 뛰고 몸부림쳐봐야 아까 모두가 그랬듯이 그런 대로 죽어지는 것이다. 기왕이면 단정히 죽어주자. 죽은 뒤 저 많은 시민들이 증언해주겠지. 억울하게 쓰러진 청년이었다고. 거연히 어머니가 거기서 달려오신다. 양팔을 벌리시고 뭐라 하시는지 들리지 않는구나. 하마터면 별떡 일어날 뻔했다.

너무도 허망한 일생. 아무 것도 해보지 못한 채 아무도 사랑해보지 못하고 이대로 죽어버리다니. 불끈 일어나 저쪽 실습지 쪽으로 도망칠까? 어차피 죽는다. 일어서서 다시 한번 억울하다고 외쳐볼까? 반항하는 줄 알고 더 빨리 쏘아버리겠지.⁶⁾

위의 문면은 진압군의 총부리 앞에서 죽음을 마주한 여수여중 교사인 주인공 ‘서경’의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서경’은 아무 죄도 없이 죽음 앞에 놓인 자신의 처지에 경악하고 절망하고 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절대적 공포 앞에서 ‘서경’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이처럼 당시의 많은 이들은 죽음의 이유도 알지 못한 채 죽음을 맞이해야만 했다.

6) 전병순, 『절망 뒤에 오는 것』, 일신서적, 1994, 27~28면

그런데 바디우는 진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사건에 마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 사건이란 지금껏 알고 있는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경험을 동반하는 것이어야 한다. 바디우에 의하면 모든 진리의 체제는 현실 속에서 그 진리 고유의 명명할 수 없는 것 위에 토대를 세운다.⁷⁾ 현실의 언어로 표현하거나 말할 수 없는 사건을 마주함으로써 과거의 지나간 진리는 무의미해지고 새로운 진리가 떠오른다는 바디우의 언명을 전제한다면 여순사건이야말로 1948년 한반도나 한민족이 지향해야 할 진리에 마주한 사건이라 이름 할 수 있을 것이다.

여순사건으로 인해 그동안 진리라고 여겨졌던 수많은 개념들, 이를테면 민족주의, 사회주의, 국가, 국토, 애국심 등의 개념들은 폐기되고 새롭게 모색되어야만 했다. 특히 당시의 사태를 설명했던 지배담론들은 삶과 죽음의 경계에 선 여수 순천의 존재들에게는 무의미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당대의 권력자들은 허망한 이데올로기를 끌어와 사태를 설명하고 여수 순천의 민중들을 반도로 폭도로 빨갱이로 규정하였고, 여수와 순천 등의 남도를 반란의 땅이라는 낙인을 찍었다. 그런데 바디우는 진리를 이데올로기에 대립된 것으로 본다. 그는 진리 자체가 허구의 구조 안에 포함되어 있으며 진리의 과정은 새로운 허구의 과정이라고 주장하면서 새롭고 위대한 허구를 찾는 것은 궁극적인 정치적 믿음을 갖는 가능성⁸⁾이라고 주장한다.

당시 여수 순천의 민중들이 겪은 죽음 앞에서의 공포와 광기는 그 누구도 기존의 알고 있는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것이었다. 바디우의 표현대로 사건 그 자체였다. 당대의 민중들이 가지고 있던 조국, 민족, 국가라는 개념을 전제로 한 진리치로는 여수 순천에서 발생한 폭력적인 사태에 대해

7) 보다 일반적으로 하나의 진리는 언제나 자신이 둘러싸고 있는 것 안의 한 지점에서 한계와 맞닥뜨리며, 이 한계에서 그 진리가 바로 이 독특한 진리이다. 하나의 진리는 자신의 독특함이라는 바위에 부딪치며, 바로 여기에서만 하나의 진리가 무력함으로서 실존한다고 말할 수 있다.(알랭 바디우, 『비미학』, 이학사, 2011, 50면.)

8) 알랭 바디우, 『투사를 위한 철학 - 정치와 철학의 관계』, 오월의 봄, 2013, 112면.

설명하거나 표현할 수 없었던 것이다. 여수와 순천의 민중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참과 거짓, 옳음과 그름, 선과 악의 개념들로만 당시 발생한 수많은 사태들을 이해하거나 설명할 수 없었다. 국민을 지키고 보호해야 한 군대가 국민을 이유도 없이 무차별적으로 학살하는 사태를 당시 민중들은 어떤 진리치와 개념으로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다. 민중들이 경험한 미증유의 폭력과 절망과 공포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언어와 새로운 진리치가 필요했던 것이며, 그런 점에서 여순사건은 여전히 지금도 한반도와 한민족에게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가야 할 진리를 탐색하고 규정하는 임계점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여순사건은 기존에 알고 있는 언어로는 환원 불가능한 사건이었다. 세계와 민족과 역사와 같은 개념들을 새롭게 정의하고 해석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진리와 마주한 사건이었다. 한반도에서 살아나가야 할 우리들의 삶의 진리를 새롭게 모색할 수 있는 사건이었던 셈이다. 새롭게 열리는 한반도의 역사적 지평을 제시할 수 있는 사건으로서의 여순사건은 새로운 통일운동의 기점이자 이 땅의 진정한 민주화의 정도를 측정할 가능점이다.

바로 이 지점이 여순사건을 새롭게 조망하고 문학적으로 형상화할 수 있는 준거점이 될 수 있다. 당대의 현실이나 실체와 동떨어진 이데올로기가 아닌 민중의 현실적 삶의 실체에 다가선 지점에서 여순사건의 제대로 된 진상을 규명하고 재해석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불의한 권력자나 정통성을 상실한 지배자들의 이데올로기나 진리치, 그들의 불의한 언어가 아니라 민중들의 살아있는 삶을 담보로 한 민중들의 실체에 가까운 언어로 여순사건을 다시 설명하고 문학적으로 형상화해나가야 한다.

4. 애도와 용서의 문학적 형상화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에서는 사람을 설득하기 위한 방법으로 진(眞)

· 선(善)·미(美)를 제시하였다. 진은 진리에 대한 옳고 그름, 선은 도덕과 윤리, 미는 아름다움과 추함과 연관이 있는데, 이는 지정의(知·情·意)로 설명되기도 한다. 그런 바탕위에서 칸트는 세권의 책을 저술하였는데, 진리와 관련된 『순수이성비판』, 도덕과 관련된 『실천이성비판』, 아름다움과 관련된 『판단력비판』이 그것들이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대체로 이성에 기반한 진리와 지식을 상위에 두고, 아름다움이나 감정과 연관된 감성을 하위에 둔 채로 모든 사건과 사람들에 대해 판단하고 실천하였다. 감성을 억압하고 이성을 우위를 두는 기득권자들의 장치⁹⁾에 의해 유지되고 관리된 사회가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 체제인 것이다.

그런데 여순사건을 본격적으로 다룬 이태의 『여순병란』의 「작가의 말」에는 이러한 우리의 고정관념을 흔들어놓는 언술이 제시되고 있다.

- 위 두가지 사건(4·3과 여순사건)들도 이데올로기의 충돌이라고 해석한다. 나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다.
- 결국 이념은 극소수의 선동가나 뒷날의 이론가들이 그럴싸하게 포장하는 것일 뿐이다.
- 너무 이론적이지 말자. 진실은 의외로 하찮은 곳에 있는 것이다.¹⁰⁾

위에 제시된 이태의 서술은 4·3과 여순¹⁰·19의 실체를 제대로 보여주는 바가 있다. 사실 우리는 지금까지 여순사건을 진선미나 지정의 중에 이성에 기반한 진리나 지식, 옳고 그름의 차원에서만 보고 판단해왔다. 즉 소

9) 이 [장치라는] 이름으로 제가 포착하고자 한 것은 담론, 제도, 건축상의 정비, 법규에 관한 결정, 법, 행정상의 조치, 과학적 연구, 철학적·도덕적·박애적 명제를 포함하는 확연히 이질적인 집합입니다. 요컨대 말해진 것이든 말해지지 않은 것이든, 이것이 장치의 요소들입니다. 장치 자체는 이런 요소들 사이에 수립되는 네트워크입니다, …… 장치란 (이른바) 일종의 형성물이라고 저는 이해합니다. 그것은 어떤 순간에 긴급함에 답하는 것을 주요 기능으로 삼았습니다. 따라서 장치의 지배적 기능은 전략적인 것입니다.(조르조 아감벤, 『장치란 무엇인가? 장치학을 위한 서론』, 도서출판 난장, 2010, 16면)

10) 이태, 『여순병란』 上, 도서출판 청산, 1994, 4~5면.

수의 이론가나 선동가, 정치인, 지배집단들에 의해 설정된 이데올로기의 차원에서만 여순사건을 판단하고 평가해왔던 것이다.

우리는 여순사건을 이성으로부터 기원하는 옳고 그름, 지식, 이데올로기의 틀이 아닌 당시 해방 전후를 살았던 이들의 삶의 실체를 바탕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해방된 조국을 맞아 단일민족국가를 꿈꾸던 이들도 많았지만 기실은 해방되어서 식민지 시대의 공출이나 착취, 징용과 징병의 위협으로 벗어난 것에 모두가 반가워했을 것이다. 그리고 지긋지긋한 배고픔과 억압의 공포로부터 벗어나 편안히 발 뻗고 사는 시대가 온 것이라 믿었을 것이다. 하지만 해방된 조국의 현실은 처참했다. 오히려 식민지 시대의 삶보다 나아진 것은 없이 불의가 판을 치고 일상의 삶은 더 열악해져 갔다.

(가) “그 모진 일제 전시하에서도 조박석죽으로 이어왔던 목숨들인데 해방된 내 나라에서 굶어 죽다니, 왜 우리가 시세의 절반도 안 되는 값으로 피땀 흘려 거둔 양곡을 강제 수매당하고 자신은 굶어 죽어야 하나! 이게 무슨 놈의 해방인가!”
“그래 진짜 해방은 아직도 멀었어!”¹¹⁾

(나) “이게 무슨 해방입니까? 해방이 되고 미군이 들어오고 이승만과 한민당이 설쳐대고 있지만 우리는 달라진 게 없습니다. 배고픈 것도 마찬가지, 공출도 마찬가지, 그들로부터 핍박받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무엇이 해방입니까? 달라진 것은 총독부가 군정청으로, 고등계가 사찰계로 이름이 바뀌었을 뿐입니다. 국도는 오히려 반동강이가 됐지만 분단을 반대하면 죄가 됩니다. 백주 테러가 공공연히 자행되고, 세상은 무경위가 판치고 있습니다. 왜놈들은 천황에게 충절을 해도 형식적인 재판은 했지만 지금은 죄없는 사람이 들개처럼 맞아 죽어도 호소할 곳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해방입니까?”¹²⁾

(가)의 문면에서처럼 해방이 되었지만 미군정에 양곡을 강제 수매당하고

11) 『여순병란』 上, 75면.

12) 『여순병란』 下, 67면.

많은 민중들이 굶어 죽는 사태까지 발생하였다. 당시의 현실과 민중의 삶은 오히려 식민지시대보다 더 열악해졌던 것이다. 높은 물가상승, 실업난, 식량문제 등의 민생고로 인해 미군정기간 동안 민중의 삶은 식민지시기보다 더 힘들고 배고프고 생존 자체가 문제시되었다.¹³⁾ (나)의 문면과 같이 정치 사회적 상황 또한 진정한 해방된 조국의 모습은 아니었다. 총독부가 군정청으로, 고등계가 사찰계로 바뀌었을 뿐 국토는 분단되고 세상은 불의와 무경위만이 판치고 있었다. 식민지 시대에는 적어도 형식적 재판이라도 있었지만 해방 후에는 백주테러가 자행되고 죄 없는 사람이 맞아 죽어도 호소할 곳이 없었다. 여기서 민중의 불만은 폭발할 수밖에 없었다. 총을 들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리고 여순사건이 발생하면서 총을 든 사람이든 들지 않았던 사람이든 많은 이들이 처참히 죽어갔다. 죽어가면서도 죽는 이유를 모르는 이들이 대부분이었다. 죽음 이후에 죽음의 이유가 만들어졌을 뿐이다. 그리고 죽은 자는 말이 없고 그 고통과 상처는 살아남은 아들과 딸, 친족들에게 그대로 남겨지고 각인되었다. 죽은 자 대신 살아남은 자들이 자신들의 의도와 상관없이 이데올로기를 만들었던 권력자들에 의해 그 고통을 그대로 물려받았다. 연좌제란 이름으로 그 상처는 평생 각인되었다.

이제는 돌아가신 이들에 대한 애도가 필요한 시점이다. 프로이트에 의하면 애도는 상실로부터 근원하며 그러한 상실이 계속되면 우울증으로 발전해나간다고 한다. 아픈 상처이지만 그것들을 기억하고 문학적으로 형상화

13) 1948년 1월 현재까지 만 2년 5개월 동안 서울시 생필품 가격은 평균 25.2배나 급등했고, 해방 후 3년도 못 되어서 실질임금 상승률은 물가 상승률에 비해 5분 1 이하로 떨어지고 있었다. 또한 1947년 현재 남한의 공장 조업률은 최저 4퍼센트에서 최고 40퍼센트 정도였으며 이에 따라 실업률 또한 심각한 상태였다. 뿐만 아니라 미군정의 강압적인 미곡수집으로 인해 엄청난 식량난에 굶어 죽은 이들이 속출하였고 1948년 전남 영암에서는 3월부터 6월 사이에 기아군중이 식량창고를 습격하여 수집미를 탈취하는 사건이 빈발하였다. (황남준, 「전남지방정치와 여순사건」, 『해방전후사의 인식3』, 한길사, 1987, 424~428면 참조.)

하는 과정을 통해 진정한 애도를 수행¹⁴⁾해나가야 할 것이다. 말할 수 없는 자, 상처받은 자들이 스스로 말할 수 있고 자신의 힘겨웠던 삶이나 가족의 상처에 대해 자유롭게 말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이를 문학적으로 형상화하는 과정들을 통해 진정한 애도가 이루어져야 한다. 서로가 서로의 상처에 반응하고 감정적 공유에 도달하는 공감은 극도의 마비를 겪은 타인의 차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에, 다가서려는 진지하고 부단한 노력¹⁵⁾이기도 하다. 이처럼 감성적으로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공유하려는 진지한 노력의 과정, 특히 역사적 상처에 대한 문학적 형상화를 통해 대중들이 상처받은 자들의 삶에 대한 공감에 도달하게 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논리나 이성이 아닌 감성적 공감이 새로운 역사적 진실 규명과 의의를 추론하는데 필수적 과업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진정한 애도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용서의 결단이 요구된다. 가해자도 피해자도 모두가 역사의 굴레, 냉전 이데올로기의 피해자라는 공감 속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할 필요가 있다. 용서에 대한 다음의 구절은 우리가 이루어내야 할 용서의 문제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해준다.

어쨌든 인간에 대한 구체적인 폭력행위는 인간성에 대한 침범이기에 신성에 대한 모독이며 따라서 용서는 - 바울에게 그런 것이 있다면 - 용서할 수 없는 것을 향한다는 문제를 추가적으로 탐색하도록 하는 초청으로 읽힐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이웃에게 가해진 상해는 용서할 수 없거나, 묵과할 수 없는, 또는 무한하게 심각한 죄가 되며, 이것은 동시에 생명의 신성함에 대한, '신의 형상'인

14) 우리를 둘러싼 현실 세계의 질서가 견고하면 할수록 그 세계의 질서에 희생당하고 억압당하는 죽음에 대한 애도는 성급하게 철회해서는 안 된다. 애도의 수행은 상실된 대상의 흔적을 삭제하고 슬픔을 극복하여 종결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에 대한 기억을 지속하는 것이라야 한다. 애도의 선부른 종결은 애도 이전의 사회가 정당한 사회였다는 환상을 조장할 수 있다. 그러므로 끝나지 않는 애도는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이전의 세계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선언인 것이다.(권양현, 「TV드라마 <마을-아치아라의 비밀>에 나타난 애도의 정치적 상상력」, 『한국현대문예비평연구』, 54집, 2017, 61면)

15) 전진성, 「트라우마의 귀환」, 『기억과 전쟁』, 휴머니스트, 2009, 46면.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모독이 아니겠는가?¹⁶⁾

위의 문면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여순사건 당시 발생한 민간인 학살과 국가 폭력은 있어서는 안 되는 엄청난 폭력 그 자체였고, 그것은 바로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모독이었다. 그런데 사도바울은 이러한 폭력에 직면하여 용서의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진정한 용서는 용서할 수 없는 것을 향해야 한다는 것이다. 누구나 용서할 수 있는 것을 용서하는 것은 용서라고 할 수 없으며, 진정한 용서는 누구도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하는 것이라고 바울은 강조한다. 여순사건 70주년을 맞이한 한국 사회는 지금 이러한 용서의 아포리아, 용서의 역설적 상황에 직면해 있다.

사실 당시의 피해자나 가해자(군인·경찰)는 모두 엄혹한 냉전 이데올로기와 체제 대결의 장, 잔혹한 국가폭력의 구조적 희생양들이었다. 문제는 그런 구조를 통해 자신의 이익을 관철하고 생산하였던 미국과 소련, 이 땅의 권력자들이었다. 당시에 총을 겨누고 쏘고 맞았던 모든 이들은 가장 기본적인 인권이나 생명권 앞에서 모두 희생자들에 불과할 뿐이었다. 이제 진리나 선악의 개념이나 기득권자들의 장치를 근간으로 하는 냉전이데올로기라는 구조의 틀을 깨뜨리고 감성으로 접근한 애도와 용서의 가치를 전경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동안의 여순사건을 형상화한 문학작품들은 역사적 사건의 무게감에 압도되어 사건 자체를 기록하는 것에도 많은 어려움을 노정하였다. 하지만 여순사건을 소재로 하는 앞으로의 문학작품들은 역사적 진실의 규명과 더불어 애도와 용서의 의의를 더욱 성숙하게 제시하고 형상화해내야 할 것이다.

16) 테드 W. 제닝스, 『테리다를 읽는다/바울을 생각한다: 정의에 대하여』, 그린비, 2014, 299면.

5. 여순 10·19의 문학적 형상화와 그 전망

근대국가에 이르러 시민 혹은 인민은 민족 혹은 국가 구성의 기초이자 국가 권력의 기원이었다. 국가는 국토, 주권과 더불어 국민을 국가성립의 가장 주요한 요소로 삼았고, 국가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발원한다고 근대국가의 헌법에 명문화하였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이는 국민과 인민을 기만하기 위한 정치공학적 혹은 문학적 수사에 불과하였다. 적어도 식민지를 경험한 후발 민족국가의 성립과정에서 이러한 불행한 정치적 수사는 단지 수사 그 자체이자 허구였음이 많은 역사적 사건으로 증명되기도 하였다. 정통성을 상실한 국가 권력이 국가 성립의 근원이자 국가 권력의 발원이라 할 수 있는 인민이나 국민을 무자비하게 짓밟거나 생존의 토대를 짓밟는 과정을 통해 부당한 권력의 정립과 재생산을 기도하였던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불의한 국가폭력의 실체를 해방이후 근현대사의 전개과정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제주4·3, 여순10·19, 광주5·18 등이 바로 적나라하게 드러난 국가 폭력의 사건들이었다.

이와 같은 무자비한 국가폭력에 대항하는 담론을 형성하는 데 중추적인 기여를 한 것이 바로 실천적인 의식들을 자각한 시인 소설가들에 의해 이루어진 문학적 형상화 작업들이다. 국가폭력의 실체와 양상을 사실적이고 직접적으로 규명하려는 역사적 연구와는 다르게 국가폭력에 대한 문학적 형상화 작업은 직접적 사실의 제시보다는 언어적 형상이라는 간접화의 방식을 통해 이루어져 왔다. 특히 국가폭력을 형상화한 소설의 경우 사실의 규명에 초점을 맞추면서도 상상력이나 허구화의 과정을 통해 사실의 전달과 함께 감동의 확장이라는 측면에 무게중심을 두었고, 이러한 방식을 통해 대중들이 국가폭력이라는 역사적 실체를 좀 더 쉽게 이해하고 가슴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이다. 광주 5·18과 제주 4·3을 대중들에게 쉽게 알리고 공감하게 하였던 것들이 바로 김준태 시인의 「아 광주여! 우리나라의 십자가여!」로부터 촉발된 오월시 동인들의 시와 송기숙의 『오월의 미소』, 임

철우의 『봄날』과 같은 오월문학들이었으며, 현기영의 「순이삼촌」과 현길언의 「불과 재」와 같은 4·3문학들이었다. 이들 문학작품들을 통해 대다수의 민중들이 국가폭력의 문제를 새롭게 인식하고 사건의 의의를 재해석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여순사건의 문학적 형상화가 광주 5·18과 제주 4·3의 문학적 형상화에 비해 현저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이다. 50여년 이전에 발표되었던 이태의 『여순병란』, 전병순의 『절망 뒤에 오는 것』 등이 여순사건을 소재로 하였지만 광주문학과 4·3문학의 양과 질에는 압도적으로 미미한 것이 사실이다. 그 원인은 광주와 제주의 사건들이 국가차원의 진상규명과 반성이 이루어짐으로써 국민적 공감대와 더불어 사건들을 문학적으로 소개화하는 데 제약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아직도 여수와 순천지역에서는 여순사건을 말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혹은 금기 같은 것이 형성되어 있어서 이를 문학적으로 형상화하는 것이 쉽지 않다.

그런 가운데 여순 10·19사건을 본격적으로 다룬 양영제의 장편소설 『여수역』¹⁷⁾은 귀향의 내적 형식을 빌려 1948년,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70년전 발생한 여순사건의 실체, 특히 정통성을 상실한 국가 권력이 무고한 민간인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비극적 양상을 형상화해내고 있다. 이 작품은 여순사건에 대한 그동안의 침묵을 깨뜨리고 여순사건과 국가폭력의 문제를 문학적으로 형상화해냈다는 점에 큰 의의를 갖는다. 여순사건의 문학적 형상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순사건이 여전히 여수와 순천 등의 지역공동체가 해결해야 할 현재진행형의 과업임을 밝히고 있는 점인데, 이러한 과제를 작가는 여수라는 구체적인 공간과 장소성을 매개로 하여 이 작품에서 치밀하게 형상화하고 있다. 소설에서 제시되고 있는 여수의 많은 공간들이 여순사건의 실체를 드러내주는 장소성을 획득해내고 있다. 여수역 광장 - 귀환정 - 새마을 동네 - 변영상회 - 신월동 - 형제묘 - 여수 엑스포역 등의 공간의 명칭이 장의 제목

17) 양영제, 『여수역』, 바른북스, 2017.

으로 제시되면서 각각의 공간에 새겨져 있는 여순사건의 비극성이 효과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이 소설에서 귀향의 여로와 함께 서사를 추동하는 핵심은 바로 주인공의 어린 시절의 추억과 기억이다. 하지만 주인공 ‘훈주’의 유년시절의 추억과 기억은 다른 귀향소설의 주인공의 그것들처럼 아름다웠던 것만은 아니다. ‘훈주’에게 있어서 여수에 대한 기억은 수많은 학살과 죽음의 이미지로 전경화되어 그의 내면을 가득 채우고 있다. 그럼에도 그는 공동체 구성원의 화해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비극적 역사를 잊지 않고 기억해야만 한다고 이 작품에서 피력하고 있다.

‘작가후기’에서 강조되고 있듯이 작가는 여순사건의 문제를 단지 미국의 자본주의 세계 체제 전략이나 당시 권력집단의 폭력성과 권력욕만 탓해서는 안 될 것임을 반복해서 주장하고 있다. 작가는 이 소설을 통해 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해서는 가해자였던 외부의 적을 설정하고 비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책임과 의무에 대한 자기반성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 작품이 가지고 있는 궁극의 의미는 여순사건이 지나간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 여전히 현재성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지금 해결하고 책임져야 할 사건임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작품은 여순 사건이 지나간 과거의 역사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해결해야 할 한반도의 수많은 의제들의 중층적 핵심 고리의 역할, 즉 한반도가 당면한 역사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금석으로서의 현재적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이 점이 여순 10·19를 소재로 한 문학적 형상화가 이루어져야 당위적 이유가 되기도 한다. 이 작품을 계기로 여순 10·19의 문학적 형상화가 충분히 이루어져서 여순 10·19의 역사적 실체 규명과 더불어 한반도의 역사적 과제가 해결될 단초가 되어야 할 것이다.

6. 맺음말

여순 10·19는 정통성을 상실한 국가폭력에 의해 무고한 민간인이 희생당한 사건으로 제주 4·3, 광주 5·18과 비교해볼 때 서로 밀접한 역사적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이들 사건 모두 한국 사회의 가장 근원적인 모순들인 제국주의와 봉건주의에 대한 저항으로부터 촉발되었으며 당대 사회를 근본적으로 전환시키는 임계점이 되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들 사건들로 인해 국가와 권력의 허구성이 폭로되고 그로 인해 피해입은 민중들의 각성과 저항이 사회적 변혁운동의 새로운 동력이 되었다.

여순 10·19의 역사적 사건으로서의 의의 또한 이러한 맥락들 가운데 추론될 수 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국가폭력의 희생자들인 하위주체들이 스스로의 각성을 이루어내고 현실적인 사회변혁 운동의 전위에 나섬으로써 새로운 사회를 열어가는 단초가 되기도 하였다. 사실 여순 10·19는 민중을 주체로 한 반제 반봉건 투쟁의 의미를 갖고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미국 주도의 한반도 분단 체제에 대한 저항으로서의 최초의 통일 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여순 10·19 사건의 역사적 의의에도 불구하고 광주 5·18이나 제주 4·3의 문학들에 비해 여순 10·19를 소재로 한 문학적 형상화는 여전히 미흡한 편이다. 이태의 『여순병란』, 전병순의 『절망 뒤에 오는 것』 등의 작품들과 2000년대 들어서 나종영의 「여수동백」, 김해화의 「아버지의 꽃집」, 박두규의 「1948년 10월 여수」 등의 시작품들이 창작 발표되기도 하였지만 아직도 미진한 게 사실이다. 여순 사건으로 인한 희생자들의 고통스러운 삶과 그들의 생생한 육성이 아직 제대로 문학적으로 형상화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여순 10·19의 역사적 진실과 의의가 많은 대중들에게 알려지지 않고 역사적 의의에 대한 공감을 얻어내지 못하고 있기도 하다.

이제 여순 10·19 사건을 소재로 한 많은 문학 작품의 창작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광주와 제주보다도 더 참혹한 국가폭력의 실체를 알리고 이에

대한 역사적 의의를 많은 대중들과 공유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여순사건을 소재로 한 더욱 많은 작품들이 창작되어서 여순사건의 실체와 의의가 보다 많은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져야 할 것이다. 그 결과 여순 10·19문학이 광주 5·18문학이나 제주 4·3문학과 더불어 국가폭력의 실체를 문학적으로 형상화한 대표적 문학으로 한국문학사에 새롭게 자리매김 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이 글은 여순사건의 역사적 의의와 문학적 형상화의 필요성에 대한 고찰과 논의에 집중함으로써 여순사건을 형상화한 작품들을 구체적으로 낱낱이 살피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런 점에서 여순사건을 형상화한 각각의 작품들에 대한 치밀하고 심층적인 분석 작업이 필요로 하고, 이를 향후 연구 과제로 남긴다.

참고문헌

- 권양현, 「TV드라마 <마을-아치아라의 비밀>에 나타난 애도의 정치적 상상력」, 『한국현대문예비평연구』 54집, 2017, 61면.
- 김진수, 『좌광우도』, 실천문학사, 2018, 28~29면.
- 양영제, 『여수역』, 바른북스, 2017.
- 이 태, 『여순병란』 上, 도서출판 청산, 1994, 4~5면/67~75면.
- 전병순, 『절망 뒤에 오는 것』, 일신서적, 1994, 27~28면.
- 박만규, 「신군부의 광주항쟁 진압과 미국문제」, 『민주주의와 인권』 3권 1호, 2003, 239면.
- 전진성, 「트라우마의 귀환」, 『기억과 전쟁』, 휴머니스트, 2009, 46면.
- 주철희, 「한국전쟁 전후 반공문화의 형성과 그 의미」, 『한국민족문화』 59,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6, 5면.
- 한성훈,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의 진상을 찾아서」, 『여성과 평화』 2, 한국여성평화연구원, 2002, 254면.
- 황남준, 「전남지방정치와 여순사건」, 『해방전후사의 인식3』, 한길사, 1987, 424~428면.

알랭 바디우, 『비미학』, 이학사, 2011, 50면.

_____, 『투사를 위한 철학 - 정치와 철학의 관계』, 오월의 봄, 2013, 112면.

조르조 아감벤, 『호모 사케르-주권 권력과 벌거벗은 생명』, 새물결, 2008, 156면.

_____, 『장치란 무엇인가? 장치학을 위한 서론』, 도서출판 난장, 2010, 16면.

테드 W. 재닝스, 『테리다를 읽는다/바울을 생각한다: 정의에 대하여』, 그린비, 2014, 299면.

Abstract

Historical significance of the event
and the literary figuration of the Yeo · Sun 10 · 19 incident

Choi, Hyun-joo*

This paper examines the historical significance of the event and the literary figuration based on the Yeo · Sun 10 · 19 incident of the event and the literary figuration based on the Yeo · Sun 10 · 19 incident. This incident is one of the representative national violence cases in the development of Korean modern history since liberation. It is similar to the damage of Jeju in the civilian massacre by the state power, and it has the same social and historical character in the process of the historical events in Gwangju 5 · 18. But the truth about the incident and the recovery of the honor of the victim have not been achieved.

There may be many sources of this unfavorable situation, but the main reason may be that public affirmation about the truth and significance of historical events is not done properly. In fact, The literary and artistic works dealing with the Yeo · Sun 10 · 19 incident are not well known to the public especially because of the lack of transfer of works compared to Jeju 4 · 3 and Gwangju 5 · 18. In this paper, I tried to deduce the historical significance presented in the works as the literary works of the Yeo · Sun 10 · 19 incident were figured.

I looked at literary figuration of subaltern-subjects who could not speak their wounds and suffering and focused on Kim Jinsu's poetry "The Slaughter in Aegi-island". I saw death in front of the violence through Jeon Byeong-soon's novel, "The despair and the loss of value". In addition, through Yi-tae's "Yeo · Sun military uprising", he tried to overcome the

* Suncheon National University

harmful effects of the Cold War ideology. I hope that literary figuration based on the Yeo · Sun10 · 19 incident will be needed, and that when such tasks are fulfilled, the literary works of the YEO · Sun10 · 19 incident will be newly established in the history of Korean literature.

Key Words : Yeo · Sun 10 · 19incident, Gwangju5 · 18, National violence, Subaltern-subject, Mourning and forgiveness, Literary figuration

<필자소개>

이름: 최현주

소속: 순천대학교

전자우편: narcs04@hanmail.net

논문투고일: 2018년 12월 31일

심사완료일: 2019년 02월 01일

게재확정일: 2019년 02월 14일